

4강 요지 파악

Gateway 스포츠 생태계에서의 협조적 경쟁

A sport ecosystem exists based on the type and rate of coopetition existing.

Coopetition is defined as "the simultaneous pursuit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mong firms to leverage strategically important resources for superior value creation purposes".

It is a useful way to understand the dynamic nature of sport businesses which need to collaborate for resource efficiency purposes but potentially compete with each other.

This special relationship should be managed properly due to trust and confidence issues being paramount.

It can be challenging to be collaborative and competitive in sport as they involve different forms of behaviour.

This means a careful balancing act may be required in terms of the amount of emphasis placed on each activity.

Often sport managers will try to be more competitive due to performance reasons and less collaborative.

By necessity they may need to share information but do so in a cautious manner.

This means it might be better to have plans in place about how to pursue both simultaneously.

This will ensure one is not neglected at the expense of the other.

스포츠 생태계는 존재하는 협조적 경쟁의 유형과 빈도에 기반하여 존재한다.

협조적 경쟁은 '보다 높은 가치 창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 간의 협력과 경쟁의 동시적 추구'로 정의된다.

그것은 자원 효율성 목적을 위해 협력해야 하지만, 잠재적으로 서로 경쟁해야 하는 스포츠 사업체의 역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유용한 방식이다.

이 특별한 관계는 신뢰와 신용 문제가 최고이기 때문에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

스포츠에서 협력적이면서 경쟁적인 것은 서로 다른 형태의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이는 각 활동에 두는 강조의 정도 면에서 주의 깊은 균형 잡기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흔히 스포츠 관리자들은 성과의 이유로 더 경쟁적이고, 덜 협력적이라고 애쓸 것이다.

필요에 의해 그들은 정보를 공유해야 할 수도 있지만, 신중한 방식으로 그렇게 한다.

이는 둘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준비해 두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가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할 것이다.

1 에너지 활용 지식의 축적을 통한 인류의 번영

There's a saying that "you can't eat information."

That may be so, but the food we eat today is the fruit of thousands of years of increasingly high-quality information — the knowledge of how to farm — what seeds, what tools and how to use them, what times of year, what irrigation, what sequence of one crop after another on the same land.

What we eat is solar energy, filtered, concentrated, and distilled through the lens of human knowledge.

The energy the Earth receives from the sun each year has remained more or less constant through all of human civilization.

What's allowed us to flourish is our increasingly sophisticated knowledge of how to capture an ever-growing but still tiny fraction of that energy in a form that can fuel our bodies.

Every step in the advancement of our knowledge has brought with it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energy we can tap into.

"정보는 먹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지도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음식은 수천 년 동안 점점 더 양질이 된 정보, 즉 어떤 씨앗 어떤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한해중언제, 어떤 관개법, 같은 땅에 어떤 순서로 한 작물 다음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지와 같은 농사 지식의 결실이다.

우리가 먹는 것은 태양 에너지로, 인간의 지식 렌즈를 통해 여과되고, 농축되고, 증류된다.

지구가 매년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인류 문명 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

우리를 번영하게 한 것은 그 에너지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있으나 여전히 극히 작은 일부분을 우리 몸에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형태로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점점 더 정교해진 지식이다.

우리 지식의 진보에 있어서 모든 단계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의 증가를 가져왔다.

2 정보 민주화와 일반 시민의 언론인 역할

Increased community engagement by professional journalists, on their own, will not solve the problem of making the news more relevant to everyone because traditional news organizations already have abandoned many communities, leaving behind news deserts.

In those places, citizens must take up the responsibility for discovering information, holding the powerful accountable, and telling the news for themselves and their neighbors.

The democratization of information — through the disruptions caused by computers and the internet — allows citizens to retake control of local news in ways that never have existed before, and it calls them to take greater care in the gathering and dissemination of what they discover or think they know.

Journalism, perhaps like never before, belongs to the people rather than to professional journalists, wealthy publishers, or even corporate shareholders.

The same technology that has shifted the balance of power toward the people gives them the tools to act as broadcasters and publishers of information essential to their immediate community — and, more critically, to serve as gatekeepers to information for other people around them.

전문 언론인들이 지역 사회에 점점 더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뉴스를 모든 사람에게 더 관련성 있게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인데, 전통적인 뉴스 기관들이 이미 많은 지역 사회를 버리고 떠나 뉴스 사막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그런 지역에서는 시민들이 정보를 찾아내고 권력층의 책임을 추궁하며, 그들 자신과 그들의 이웃을 위한 뉴스를 전달하는 책임을 맡아야 한다.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해 초래된 (기술) 격변을 통한 정보 민주화는 시민들이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지역 뉴스 통제권을 되찾도록 해주고, 그들이 발견하거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의 수집과 전파에 대해 더욱 신중할 것을 요구한다.

언론은 아마도 전에 없이 전문 언론인, 부유한 (신문) 발행인, 혹은 심지어 기업 주주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에게 속한다.

일반 시민에게로 권력의 균형을 이동시킨 그 동일한 기술이 그들에게 인근 지역 사회에 필수적인 정보의 방송사와 발행인 역할을 하는, 더 중요하게는 그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정보 문지기 역할을 하는 도구를 제공한다.

3 과학적 검증을 통한 직관의 사실 확인

It is a myth that all ideas are equally valid, even those with little or no objective proof.

The existence of science is the commitment to objective truth.

After all, science is true: fire is hot, the wheel is efficient, birds and planes can fly, we've landed on a comet and traveled to the Moon, antibiotics treat illness, and immunizations keep us from getting sick.

These accomplishments are made possible by objective truths.

A plausible theory can, and frequently does, push science forward.

However, an intuition must be followed with testing that confirms or disproves its veracity.

If a theory is disproved, one should consider it as a reason to reject or alter the hypothesis, not a justification to just keep firmly holding to the hypothesis because you are instinctively wedded to it. Critical thinking is an absolute must, and we must respect evidence.

It's the only reason for anyone to trust anything about reality.

Without testing and evidence, intuition is useful, but it is never the ultimate word.

모든 생각이, 심지어 객관적인 증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생각까지도, 똑같이 타당하다는 것은 근거 없는 믿음이다.

과학의 존재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전념이다.

결국 과학은 사실인데, 불은 뜨겁고, 바퀴는 효율적이며, 새와 비행기는 날 수 있고, 우리는 혜성에 착륙했고 달까지 여행했으며, 항생제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접종은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

이러한 성과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가능해진다.

그렇듯한 이론은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으며, 실제로도 자주 그렇다.

그러나 직관은 그것의 진실성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검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만약 어떤 이론이 반증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 가설을 거부하거나 변경할 이유로 여겨야지, 본능적으로 그 가설에 집착한다는 이유로 그저 그것을 계속해서 굳게 고수하기 위한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

비판적 사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증거를 존중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누구나 현실에 관한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다.

검증과 증거가 없으면 직관은 유용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최종적인 판정은 아니다.

4 불안을 공감과 연민으로 전환하기

If you suffer from social angst, awkwardness, or dread, know that this is a perfectly normal response.

No matter what it looks like, a lot of people are dealing with internal anxiety in social situations.

But it is actually possible to build your social muscle and use it to boost your connections — and your anxiety is giving you clues to what icebreakers and lifelines other people might be grateful for you to extend.

Truly listen to what your anxiety is signaling to you about where you feel uncertain or insecure, and practice empathy by offering a hand to others who might be in the same boat.

Remember that flipping anxiety into compassion is something inherent in you — it is, in fact, what your anxiety was designed to do for you.

Together, compassion and empathy can buffer against bad anxiety.

You can use your anxiety to be more outward-facing. The outcome?

The spread of compassion for your fellow human beings, other species, and the planet!

만약 여러분이 사회적 불안, 어색함, 또는 두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라.

그것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많은 사람이 사회적 상황에서 내면의 불안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회성 근육을 길러 그것을 인간 관계를 향상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여러분의 불안은 여러분이 어떤 아이스브레이커(어색함을 푸는 말)와 생명선(큰 도움)을 건네야 다른 사람들이 고마워할지에 대한 단서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다.

여러분이 불확실하거나 불안하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 여러분의 불안이 여러분에게 신호하고 있는 것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고,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공감을 실천해 보라.

불안을 연민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 안에 내재하는 것임을 기억하라. 사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불안이 여러분을 위해 하도록 고안된 것이다.

한데 합쳐지면 연민과 공감은 해로운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안을 더 외부 지향적이 되도록 활용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여러분의 동료 인간, 다른 종들, 그리고 지구에 대한 연민의 확산이다!